

민주부산의 역사를 새롭게 여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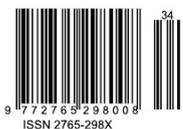
민주공월



2023. 겨울호

171

 **사단법인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민주부산의 역사를 새롭게 여는 ———

민주공원

2023년 겨울호 통권 171호

발행처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발행인 이행봉 | 편집인 김중기
 발행일 2023년 12월 29일 | 간별 계간 | 등록일 2005년 4월 12일 | 등록번호 부산중,바00013
 표지 제호 신영복 | 편집장 김예선 편집위원 김도희 박지원 유반야(내부) 김현지 이가영 이지혜 정재운(외부)
 디자인 중간 051-466-8994 | 부산광역시 중구 민주공원길 19 (우 48901)
 전화 051-790-7400 전송 051-790-7410 누리집 www.demopark.or.kr
 ※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SNS로 빠르게 소식을 만나보세요!

- 민주공원 페이스북
facebook.com/Minjugongwon
- 민주공원 인스타그램
@democracypark
-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페이스북
facebook.com/busanminju
- 카카오톡에서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를
검색하여 친구추가하세요.



펴내면서

2023년 올 한 해 평화를 주제로 평화의 의미, 한반도 평화, 부산의 평화를 소식지에서 다루어왔습니다. 마지막 발행 호인 겨울호에서는 '일상의 평화'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일상은 말 그대로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입니다. 매일같이 변함없이 하루하루가 반복된다면 우리의 일상은 얼마나 평화로울까요? 조금씩 변화가 있다면 덜 지루하고 재미있을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일상을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변화라면 어떨까요? 재미는 커녕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겨울호에서는 일상의 평화가 깨진 사람들의 이야기, 일상의 평화를 깨뜨리는 사회 구조적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반대로 일상이 아닌 드라마와 영화 속에서 드러나는 평화와 관련된 이야기도 담아내었습니다. 부모님의 결혼 이야기를 시작으로 민주공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사료에 담긴 지역 주민들의 일상을 토대로 연구를 이어간 연구자의 일화도 소개합니다.

무엇보다 2023년 올 한 해 민주공원,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와 함께하며 일상을 보낸 회원 가족 여러분과 방문객들의 모습과 후기도 지면에 펼쳐 보입니다. 민주공원 자원활동가들의 이야기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입니다. 이시기후 탓인지 부산에 우박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역시 우리 일상의 평화를 깨는 일입니다. 내년에는 부디 모든 분들의 일상이 평화롭기를 바라며 2023년 마지막 소식지인 겨울호를 펴냅니다.

목 차

- 04 **4대항쟁** 2023 부마아카이브 순회전 <일꾼몸 - 시대를 그리다>
- 08 **민주공원** 찾아가는 민주공원
즐기며 배우는 민주공원
우리 모두는 서로의 운명이다 - 멸종위기동물 예술로 HUG
2023 민주공원 자원활동가
- 16 **회원과 함께** 아듀 2023! 회원과 함께한 다채로운 시간 _김도희
- 22 **주제** 조각난 일상을 재구성하는 걸음 _이현경
일상의 평화를 깨뜨리는 Chill Kill _이지혜
우리의 일상은 전쟁과 얼마나 가까울까? _이용석
- 34 **기억에서 기록으로** 수 십 년 후, 또는 언젠가 올 미래의 연구자에게 _신현아
- 38 **민주사랑방**
- 40 **민주알림방**
- 43 **생각, 한 컷** _쁘리야 김



일꾼몸

2023 부마아카이브 순회전 〈일꾼몸 - 시대를 그리다〉

2023 부마아카이브 순회전 <일꾼몸 - 시대를 그리다>가 12월 12일(화)부터 12월 24일(일)까지 민주공원 잡은펼쳐보임방(기획전시실)에서 열렸습니다. 2023 부마아카이브 순회전은 부마민주항쟁 기념재단의 주최로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아름다운청년천대일기념관,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울산노동역사관1987이 공동주관합니다.

지난 7월 아름다운청년천대일기념관 전시를 시작으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울산노동역사관1987 전시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민중미술 주제 소장작품 37점,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소장작품 1점(곽영화), 작가 소장작품 2점(곽영화, 박경효)을 비롯 총 40점의 민중미술 작품을 펼쳐 보이는 전시입니다.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일, 끈, 몸이다. 시대를 살아가는 일, 끈, 몸을 보여주고 싶었다. 늘 일하는 어머니, 아버지 보고 자랐다. 일하는 이가 밥을 먹는다. 밥은 하늘이다. 일하는 사람이 세상의 주인이다. 역사는 일하는 이들이 열어가게 새 하늘이다. 농사꾼, 지게꾼, 장사꾼, 일꾼. 끈이 되려면 몸을 일에게 꿰어주어야 한다. 몸이 일에 길들여지는 길이 끈이다. 고단한 끈들이 모여 달콤한 꿈을 끈다. 일이 깃들되 일로부터 벗어나 노니는 꿈을 꿈꾼다. 일과 놀이는 우리 끈들의 몸에서 탈바꿈한다. 몸은 일이 마련한, 끈들이 자리잡은 본풀



신학철_유월항쟁도_94x245cm_천에 목판화_1999



곽영화_부마민주항쟁부활도_7,000×3,000cm_천막천에 아크릴 걸개그림(시인 180여 명 제작 참여)_2019



곽영화_맞혀진 큰누나 일기(姉忘日記)_280×147cm_캔버스에 아크릴_2021

이다. 사람의 이야기가 발화하는 이야기 바탕이며, 역사의 궤적이 지나간 자국이다. 농사꾼 밭은 밟는 땅이며, 잠녀(해녀) 얼굴은 물질하는 바다며, 어머니 얼굴은 살붙이들 잡자리다. 몸은 비로소 일, 끈이 깃든 존재의 집이다. 우리는 시대를 살아온 존재의 집들을 들여다보며 항쟁의 당대적 의미를 성찰해보려 했다.

아카이브 아트(Archival Art)는 기록을 바탕으로 기억의 회로를 들여다 듣게 하는 작업이다. 아카이브 아트는 구조

를 해부하고 현장을 성찰하는 사회미학적 발화이다. 민중미술 작품 40점을 고르고, 작품마다 따로 ‘문장들’을 만들어보았다. 작품의 해제라기보다는 작품이 말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하였다. 기록을 넘어 기억의 회로를 밝히는 작업을 꾀하였다. 계몽적 인식은 판을 바꾸지만 미적 직관은 마당을 바꿀 수 있다. 작품들에 깃든 우리들 우물과 들여다 듣는 우리 눈길이 만나 역사의 물결을 불러일으키는 꿈을 꾸어 본다.

_ 신흥철 민주공원 학예실장, 전시 서문 중에서



홍성담_오월-19 가자, 도청으로_78x64cm_목판화_1988



이윤주_붉은 노을_162x130cm_캔버스에 유채_2014



홍선웅 농민전쟁_48x60cm_목판채색_1986

찾아가는 민주공원

민주공원은 영주동에 있지만 인근 지역이며 부산 곳곳을 다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부산시중구골목탐험>과 <찾아가는 부산민주역사길스토리투어>를 진행했습니다. 현장감이 물씬 느껴지는 사진으로 찾아가는 민주공원의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부산중구골목탐험>은 10월 13일을 시작으로 20회 진행했습니다. '자주에서 민주로' 코스는 부산 중구 지역의 민주화운동 관련 공간을 직접 탐험하는 활동으로 민주공원 - 부산가톨릭센터 - 부산근현대역사관 별관 - 대각사- 부마 표지석 코스로 진행했습니다. '공존과 평화로' 코스는 부산 중구 지역의 독립운동과 관련된 공간으로 40계단문화관 - 백산 기념관 - 옛 부산경찰서터 - 용두산 공원을 탐험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신청했는데요, 부산 중구의 골목에 담긴 이야기와 공간을 탐험하면서 옛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하여 걸을 수 있었고 미션을 통한 활동이 기억에 많이 남았다고 합니다.

<찾아가는 부산민주역사길스토리투어> 10월 27일 시작으로 5개 학교에서 60회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부산 지역의 민주화운동 관련 공간을 알아보고 4대 항쟁에 관련된 내용도 함께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며 활동지를 활용하여 참여형 수업으로 진행했습니다. 부산 지역에도 민주화운동 관련 공간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사진과 여러 자료를 통해 부산의 민주화운동 모습을 볼 수 있어 흥미로운 시간이었다는 학생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





즐기며 배우는 민주공원

민주공원은 시민이 즐기며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선보인 <반나절풍류>와 매해 많은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이 찾는 <민주공원 스토리투어>, <민주항쟁기념관 전시해설>, <민주공원 숲체험>이 있습니다.

체험프로그램 모습을 지면에 펼쳐보입니다. 내년에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민주공원 스토리투어>

공원해설사와 민주공원의 다양한 공간을 둘러보는 역사문화탐방

<민주항쟁기념관 전시해설>

전시해설사와 함께하는 민주항쟁기념관 상설전시해설

<민주공원 숲체험>

시니어숲해설사와 함께 민주공원과 인근 숲을 거닐어 보고, 다양한 나무와 열매를 살펴보는 숲 체험

<반나절풍류>

부산민주공원에서 즐기는 소장작품 드로잉피크닉 프로그램



우리 모두는 서로의 운명이다

- 멸종위기동물 예술로 HUG

지난 9월 15일(금)부터 12월 3일(일)까지 민주공원 민주항쟁기념관 잡은펼쳐보임 방(기획전시실)에서 <우리 모두는 서로의 운명이다-멸종위기동물 예술로 HUG> 전시를 열었습니다. 고상우, 금중기, 김창겸, 플로라 보르시(Flora Borsi) 작가가 참여하는 전시로 팬데믹 사태 이후 더욱 부각된 환경문제 및 생태보존의 심각성을 현대미술을 통해 고찰해 보고자 기획되었습니다. 미디어, 입체, 사진 등 다양한 매체의 예술가들이 협력하여 멸종위기동물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고 인간에 의한 환경 재해의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해 인간과 공존해야 하는 동물과 생태환경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생명의 그물망으로 연결된 생태계의 균형을 이루는 공존과 공생의 가치를 예술로 재조명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지속 가능한 실천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전시연계 체험프로그램으로 기획전시해설 <멸종위기동물, 예술로 HUG>와 드로잉 체험 <Animal Together>을 진행했습니다. 드로잉 체험은 고상우 작가의 작업 방식을 모티브로 한 체험으로 인간과 동물의 공존, 자연 보호에 대한 메시지를 표현하고 공유하는 캠페인 프로그램입니다. 활동지를 벽에 걸어두어 다른 사람들이 남기고 간 메시지를 볼 수도 있었습니다. 🐾





2023 민주공원 자원활동가



민주공원과 함께 부산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기리고 그 가치를 이어가는 청소년,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바로 민주공원 자원활동가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청소년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올해 초 자원활동가를 모집하여 한 해 동안 민주공원의 다양한 행사를 직접 기획하고 직원들과 함께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역사 탐방으로 제주와 광주에도 함께 다녀왔습니다. 민주공원 자원활동가들의 소감을 전해드립니다. QR코드를 촬영하여 활동 영상도 볼 수 있어요!

대학생 자원활동가

청소년들과 팀별 활동을 하면서 팀원들이 적은 감상평을 보면서 배우는 부분이 많았다. 장소를 직접 방문해서 역사를 알아가는 게 가장 기억에 오래 남고, 자긍심이나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경각심이 많이 남는다.

—이민희

큰 고민 없이 '재미겠다. 한번 해보자' 하고 시작한 활동이었는데 1년간 자원활동가로 활동하면서 배우고 느낀 것이 많습니다. 민주주의가 그저 주어졌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민지



민주공원 자원활동가를 하면서 혼자였으면 못했을 활동들을 다



양한 사람들과 할 수 있다는 것이 좋았고, 또한 이야기 들을 다양한 공간에서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좋은 경험이 되었다. 누군가에게는 작은 점과 같은 순간의 말과 행동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끝없이 이어지는 선과 같은 일대기의 말과 행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 활동이었다. **강동근**

청소년 자원활동가

모두와 참여하는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좋았다. 활동을 하면서 역사를 배운 덕에 우리의 삶이 그냥 얻은 게 아니란 걸 알게 되었다. 민주공원 활동은 평생 추억이 될 것 같다. **이태훈**



늘 가본 곳이나 거리이지만 그곳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몰랐다. '이곳이 이런 역사가 담긴 곳이었어'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많았던 것 같고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던 숨은 역사도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조은이**

내가 몰랐던 역사까지 자세히 알 수 있어서 흥미롭고 재미있었다. 모르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 다음에도 또 하고 싶다. **이가연**



민주공원 자원활동가 활동을 하면서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민주화 운동의 다양한 이야기를 찾고 알아보았으며 그에 대한 의미도 같이 알아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나의 민주적 소양도 기를 수 있어서 유익한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정예지**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 알게 되었고, 팀 탐방을 다니면서 팀원들과 더 가까워졌다.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정보도 많이 알게 되어 좋았다. 다음 연도에도 또 해보고 싶다. **임시현**



민주공원 자원활동가 활동을 하면서 백산기념관, 민주공원 등 다양한 장소들을 이동하며 매 새로운 역사를 배워서 재미있었다. 혼자가 아니라 조 활동으로 좋은 분들과 유익한 역사 시간을 보내 흥미로웠다. **임유진**



아름 2023!

회원과 함께한 다채로운 시간

김도희 | 시민 · 회원사업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는 2023년 봄과 가을에 회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봄에는 푸릇푸릇한 나무와 꽃내음이 가득한 민주공원에서 드로잉 피크닉을 즐기고, 가을에는 스스로 역사탐방기획자가 되어 친구, 또는 가족과 함께 역사 현장을 돌아보았지요. 회원들과 함께한 다채로운 시간을 소개하며 2024년에도 회원, 시민의 곁에서 더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함께하겠습니다.♥

❶ 민주공원에서 봄

민주공원에서 봄을 느껴
시설을 둘러
피크닉을 즐겨

봄

프로그램 일정



#도비와 함께 활동 사진을 둘러볼까요~?



#반가워요 #민주항쟁기념관에서의 첫 만남



#민중항쟁도 #그림으로 민주화운동 알아보기



#꼬불꼬불 달팽이길 #우리 인생과 같아요



#배리어프리 옥상전망대 #우리 집 찾기



#숲길 둘러보기 #피톤치드 #피크닉 장소 탐색



#민주공원 소장 작품 #드로잉작품 알아가기



#가족과 함께 #자유피크닉



#소중한 추억 #함께 만들어요

② 역사모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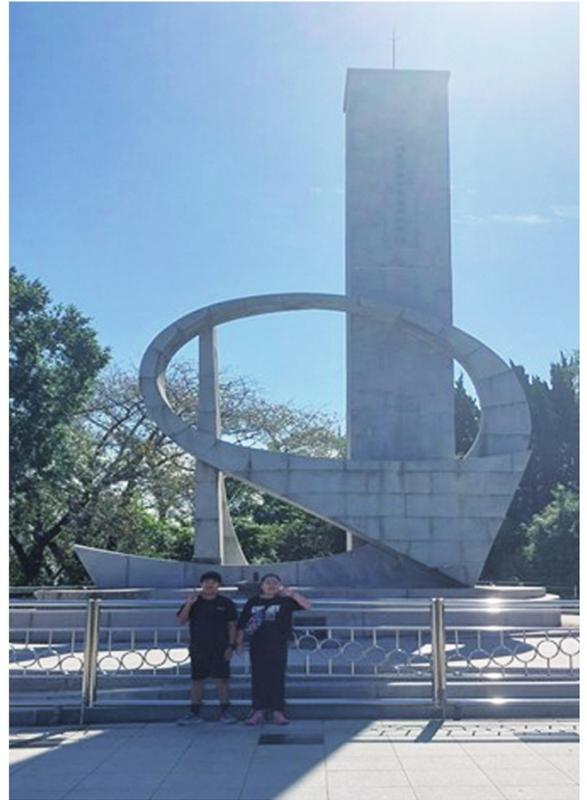


나도 우리 지역의 역사탐방 기획자!

민주화운동 모꼬지길과 일제강점기 현장, 그리고 독립운동가의 발걸음을 따라 답사하며 과거의 역사에 대해 돌아 본 24팀의 사진과 답사기를 소개합니다~

※ 지면의 한계로 모든 후기를 실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4·19혁명 희생자 위령탑은 1960년 이승만 독재 정권의 부당한 권력에 맞섰던 4.19혁명 희생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부산시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만들어졌다. 희생자들의 고귀한 민주정신은 이후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져 왔으며 '역사체험교육장'으로 우리는 4.19혁명 희생자 위령탑과 영령봉안소의 의의와 가치를 알고 묵념한 후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기리며 내려왔다. - <민주단단이> 답사기 中



◀ 일광 광산마을은 일제 강점기에 자원약탈을 목적으로 강제로 징용된 근로자들은 휴일도 없이 2교대로 일해야 했던 역사의 현장이다. 직장이 가장 부근이라 이쪽 근처를 자주 다니지만 이런 곳이 있는 줄은 전혀 몰랐다. 직접 찾아가보니 생각보다 인적도 드물고, 역사에 대한 설명도 부족했다. 인터넷으로 내용을 찾아보니 왜 이런 마을에 이런 건물이 있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고 최근 주변이 개발되어 커피숍이나 음식점 등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둘러보고 역사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 <민주시민가족> 답사기 中

▶ 민주공원의 상징적 조형물인 뜻기림 햇불(민주의 햇불)은 민주주의를 외쳤던 시민의 염원을 담고 있고 조형물 내부의 수많은 반사 재질의 작은 조각들은 '민주화를 위해 노력한 이름 없는 별들'을 형상화하고 있다고 한다. 일제강점기 때에는 '독립'이 그 시대의 사명이고 군사독재 시절에는 '민주화'가 시대적 사명이었다. 수많은 별들이 그 시대적 사명 속으로 뛰어들었고 산화하기도 했다. 이번 답사는 타 임머신을 타고 우리의 젊은 시절을 되돌아보게 했다. 대개 지난날의 추억은 아름답게 느껴지기 마련이나 이번 추억여행은 '이름 없는 별들'에 대한 미안함과 부끄러움만이 함께한 여행이었다. 앞으로의 사명은 어렵게 찾은 민주주의를 지속·발전시키기 위한 시민운동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 <함아로> 답사기 중

▶ 자주 방문했던 광복동이지만 골목길에 백산기념관이 있다는 건 미처 알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모두 독립군의 자금으로 내 놓을 수 있다니 요즘같이 부자가 되라는 인사를 하는 등 자신의 영리와 부귀를 오롯이 추구하는 속에서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개인의 안위보다 나라를 위해 혼을 불태우시다 독립을 보지 못한 채 순국하신 안희제 선생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느끼고 이를 기억해야겠다.

- <가을에는 답사가자!> 답사기 중



◀ 산허리에서 파 들어간 인공동굴과 대나무 숲 아래에 감춰져 있는 포대진지를 보면서 가슴이 서늘하였다. 끌려와 바위를 깨트려 동굴을 만들었던 나라 빼앗긴 백성의 고통스러운 삶이 마음 아팠고, 착취의 채찍 아래서도 꺾지지 않고 이겨내었던 우리 선조들이 자랑스러웠다. 지나간 시간 속에 남겨진 수탈과 침략의 발자국을 보전하여 잊지 말고 똑바로 그 역사를 직시하고 우리 후손이 다시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혜롭게 오늘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 <어머니와 함께하는 우리동네 역사 돌아보기> 답사기 중

▶ 빼거리거리는 마룻바닥의 움직임 느끼고 옛날로 돌아간 듯 한 시간 속에서 “부산진일신여자학교를 학생들이 3.1운동을 했다. 형을 살았다. 부산의 최초다.” 와 같은 역사 속 한 문장이 생생하게 다가왔다. 인쇄기술, 종이 무엇 하나 번듯하게 갖추지 않은 시기에 일본 경찰에게 잡혀가고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 공포와 맞선다는 것은 어떤 감정 일까? 단지 만세 한 번 외치는 것이 아니다. 태극기를 준비하고 시위를 몰래 준비해야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을 수도 있는 일이다. ‘~했다’, ‘~했었다’의 과거가 아닌 나에게 이런 순간이 온다면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 <부산여성향유> 답사기 中



◀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은 보통의 민중을 기억하는 장치를 곳곳에 두었다. 특히 강제 노동자의 이름을 많이 알려주었는데, 단순히 강제동원자의 이름이 아닌 존귀한 사람이었음을 후대에게 알려주는 것 같았고 그들이 조용히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었다. 그 아픈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지금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을 했다.

- <심사이다네> 답사기 中

▶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은 현재 촛불 집회의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특이하게도 우리나라에서 촛불 집회는 문화제 성격을 띤 채 열리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해가 진 이후에 옥외집 또는 건물의 밖에서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문화 행사 등은 예외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유롭게 의사표현하고 집회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행동은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순열들의 덕임을 강조하고 싶다. 🇯🇵



- <MZ와 함께 민주를 염원하는 가족 모꼬지> 답사기 中

우리의 사진들



“조각난 일상을 재구성하는 걸음”

이현경 | 10.29 이태원 참사 작가기록단



서울시청 앞 10.29 이태원 참사 분향소 앞. 시민들의 추모의 글을 포스트잇에 적어 벽에 붙였다./ 책 「우리 지금 이태원이야」

행정시스템의 붕괴, 실종된 권리, 빼앗긴 일상

‘현경아,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작년 11월 초, 3년간 동고동락했던 룸메이트가 웬일인지 전화가 왔다. 수화가 너머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사실 친구가 10월 29일에 이태원 해밀턴 호텔 골목에 있었어... 며칠 전에 장례식을 다녀왔어...’ 공기는 싸늘해졌고 늘 내 곁이 되어주었던 룸메이트는 흐느꼈다. 무기력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10월 30일 새벽, 휴대폰 화면으로 이태원 현장을 멍하게 보고 사실은 외면하고 있던 기억이 떠올랐다



「우리 지금 이태원이야」 북토크 현장

다. 기시감이 들어서였을까. 알고 싶어졌다. 안전하다고 믿던 서울 한복판에서 대규모 참사가 발생했는지. 어쩌서 내 사랑하는 사람의 일상을 파괴하는지. 세월호, 코로나-19, 10.29 이태원 참사, 왜 이리 재난은 청년 시민에게 가까이 있는지 절망스럽기도 했다. ‘알아야겠다.’ ‘뭐라도 해야겠다.’는 기묘한 부채감을 안고 <재난참사 기록학교> 과정을 통해 올해 2월부터 10.29 이태원 참사 기록단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뜨거운 여름날, 생존자이자 유가족인 진성 님을 만났다. 평택에 작은 스티디카페는 긴장감이 맴돌았다. 어떤 말을 먼저 건네야 할지, 어떤 응답의 몸짓을 해야 할지, 손은 주뻗주뻗하고 온몸에 땀이 맺혔다. 오히려 구술자인 진성 님이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우리 지금 이태원이야>에 수록되기도 한 말이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손발에 땀이 나고 작은 풀이 흔들리는 소리에도 주저앉았어요. 무인도에 갇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인터뷰하기 전에 절대 내가 먼저 울지 않으리라고 다짐했는데... 터져나온 눈물은 이내 ‘분노’로 바뀌었다. 왜 유가족들은 ‘고립감’을 통과해야만 했는지 정부의 대응을 살펴봤다. 정부는 참사 초기에

는 피해자 명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엄혹한 잣대로 피해자 간의 연결을 씌늘하게 외면했다. 일방적으로 국가에도기간을 선포하고 유가족과 어떤 협의도 없이 영정과 위패가 없는 분향소를 설치했다. 재난 참사 이후, 유가족의 권리인 ‘애도할 권리’ ‘일상을 안전하게 영위할 권리’ ‘모일 권리’ ‘말할 권리’ ‘정보에 대한 권리’는 실종됐다. 애도를 해야 할 유가족은 ‘10월 29일 밤의 진실’과 ‘연결되어야 할 유가족’을 찾고 있었다. 엄기호 작가는 고통이 이야기하는 가장 큰 문제는 ‘만남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사회적 결’을 통해 회복을 지어야 할 ‘행정 시스템’은 오히려 유가족 앞에 ‘사회적 고립’을 놓았다. 안전하게 영위해야 할 일상을 지속해서 할키고 있었다.

‘유가족다움’을 넘어 ‘우리’를 재건하는 일

행정 시스템이 회피하고 있는 권리는 민변을 통해 유가족들이 만나기 시작하면서 12월 10일 유가족협의회가 조직되었다. 사회적 결을 시민단체, 활동가, 애끓는 마음을 가진 시민, 각기 계층에서 짓기 시작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작가기록단은 ‘우리 지금 이태원이야’라는 유가족과 생존자가 증언하는 인터뷰집이 나오고 기록 활동을 시작했다. 일환으로 부산에서도 북토크가 열리게 되어 유가족 분들과 시민 분들이 가까이서 만나기 시작했다. 형제자매 유가족 분과 동행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떨리는 마음으로 ‘주기를 어떻게 보내셨을까?’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여러 고민과 질문들이 맴돌던 와중, 유가족분과 인터뷰하면서 깨달았던 게 있다. 언론, 댓글, 일상적 관계에서도 ‘유가족다움’을 요구받고 있고 일상에서 ‘피해자 드

러내기의 어려움이 있다는 걸. “울면 운다고, 웃으면 웃는다고, 싸우면 싸운다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다고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다(『미래의 피해자들은 이겼다』 중)”는 김승섭 교수의 말처럼, 일상에서 ‘유가족다움’을 견뎌내고 있었다. 유가족을 납작하게 호명하며 시혜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지 나를 되돌아보게 된 계기가 되었다.

엄숙한 슬픔만이 일상이 아닌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으로 살아갈 수 있지.” 부산에서 열린 북토크 자리에서 신부님이 불러주신 가사의 한 대목. 동행한 유가족 분은 ‘제 마음 같았어요. 어떻게든 남은 자는 앞으로 살아가야겠지요?’라고 애기했다... 그렇다. 남은 유가족들은 발을 딛고 일상을 살아 내야 하고 특히 형제자매 유가족들은 앞으로 살아 내야 할 시기가 많고 삶이 확장되는 시기다. ‘유가족다움’이라는 납작한 시선으로 일상을 분절시킬 수 없다. ‘앞으로 내가 더 잘 사는 게 떠난 가족을 위한 일인 것 같다’는 한 유가족의 마음은 엄숙한 슬픔만이 일상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웃고 마음을 털어놓고 관계 맺는 과정이 우리의 일상이라는 의미처럼 들렸다. ‘눌러 가서 죽었다’는 냉혹한 말은 우리의 실/여유/안전한 일상의 권리를 앗아가는 폭력이다. ‘우리 지금 이태원이야.’ 북토크를 통해 각기 다른 세대와 다양한 층위의 유가족 분들을 만나지만 공통으로 나눠주는 이야기가 늘 있다. 같은 처지의 유가족들 눈빛만 봐도 살 것 같다고, 한 분은 유가족들을 만나면서 본인이 이렇게 친근감 있는 사람인 줄 몰랐다고, 연대하는 분들과 아이가 어떤 사람이고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야기하면서 그날 밤 이후, 본인도 웃을 수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다는 분도 계셨다. 고립된 슬픔에서 출구를 찾고 있는 것 같았다. 시민들을 가까이서 만나는 자리인 분향소나 이태원 특별법 서명을 받는 거리에서 ‘고생 많으세요’ ‘기억할게요’라는 응원과 북토크 자리에서 감정이 차오를 때 손을 잡아주고 토닥거리는 몸짓을 보면서 참사 이후,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구성되며 일상을 영위해갈 bat줄을 잡고 있는 것 같았다.

일상을 재건해가며

북토크 자리에서 감정이 차오를 때 손을 잡아주고 토닥거리는 몸짓을 보면서 재난 참사 이후, 마치 새로운 형태의 가족에서 일상을 영위해갈 bat줄을 잡고 있는 것 같았다. 북토크에서 아직도 기억나는 인상적인 장면이 있다. ‘우리 지금 이태원이야’ 첫 북토크가 열린 자리였다. 유가족, 기록단, 출판사, 시민들 모두가 긴장한 자리. 참사 당일 현장에 있던 구조자 분이 마지막 질문을 했다. 구조가 잘 되지 않아 1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다는 소회를 꼭꼭 마음을 담아 나눴다. 대답을 들은 유가족 분은 질문자님 같은 분이 계셔 우리 동생은 3일이나 더 있을 수 있다고 얘기했다. 마치 포옹하는 듯했다. 슬프면서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이렇듯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이후 폐허가 된 풍경에서도 곁을 연결하며 부채감, 기묘함을 가진 시민들이 용기를 얻기도 했고, 유가족들은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구나’를 경험했다. 재난 이후의 시간에 소중한 것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지 않을까. 무엇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를 쓰고 있는 유가족의 일상도 진심으로 응원하게 되었다. 나의 사랑하는 아이가 돌아오지 못하는 걸 알지만 또 다시 이런 비극적인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마음을 몇 번이나 고쳐먹고 시민들을 만나러 오는 발걸음에 우리는 사실 유가족에 빚지고 있다. 유가족과 유가족 곁을 지키는 이들은 서로가 맞닿은 새로운 공간에서 차곡차곡 고통에 이름을 붙여가며 일상을 재건하고 있다. 새롭게 서로를 돌보는 관계를 맺어가며 조각난 마음을 연결하면서 말이다. 이제는 안다. 더더보이지만, 우리의 내일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유가족과 유가족 곁을 지키는 이들은 서로가 맞닿은 새로운 공간에서 차곡차곡 고통에 이름을 붙여가며 일상을 재건하고 있다. 새롭게 서로를 돌보는 관계를 맺어가며 조각난 마음을 연결하면서 말이다. 이제는 안다. 더더보이지만, 우리의 내일은 서로를 부축하며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일상의 평화를 깨뜨리는 Chill Kill

이지혜 | 부산관광공사 마케팅기획팀 매니저

chapter 1. 'Chill Kill'의 등장

얼마 전 발매한 유명 걸그룹 레드벨벳의 정규앨범 타이틀 곡 제목이 'Chill Kill'이었다. '고요함을 깨뜨리는 존재나 사건'이라는 의미를 담아 새롭게 조합한 단어이다. 우린 매일 매 순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게 등장한 'Chill Kill'로 인해 고요하고도 평화로운 일상이 무너지고 세계가 뒤바뀌어버리는 경험을 마주하고 있다. 그것이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든 세상을 뒤흔드는 거대한 소용돌이든 그 크기와 강도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각자 저마다의 고요함을 깨뜨리는 존재에 의해 평화로운 일상을 반납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발붙이고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역시 인류의 문제적 이슈로 거론되는 '전쟁, 기아, 방사능 오염, 전염병' 등과 같은 거창한 담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역사를 지니고 있다. 남북분단의 현실로 인한 전쟁에 대한 불안감,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따른 공포감, 매일 같이 우후죽순 일어나는 문지마 범죄에 대한 긴장감, 취업 경쟁에서 밀려났다는 패배감 등에 맞서 매일 나의 세계를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기를 반복하며 일상을 견뎌내고 있다.

이런 사회 현상을 가장 빠르게 반영하는 것이 미디어이다 보니 최근 영화와 드라마 등에서도 우리가 처한 현실을 때론 상상력 넘치는 판타지로, 때로는 현실보다 더 현실감 넘치는 리얼리티로 담아내곤 한다. 남북분단, 마약이나 조현병, 공황장애와 우울증과 같은 현대인의 정신질환 등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눈에 띄게 늘어가고 있다.

chapter 2. 빅뱅, 우주 소멸(?)의 비밀

최근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은 아마도 성실하고 바른 이미지로 많은 인기를 누렸던 배우 이선균과 시대의 아이콘으로 불리던 빅뱅의 지드래곤이 연루된 마약 사건이지 싶다. 유흥업소 여종업원의 진술에서 비롯된 유명 연예인의 마약 투약 혐의의 진위 여부를 놓고 아직도 날마다 언론에서 떠들썩하다.

이번 사태에서도 보듯이 더 이상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가가 아니다. 도로 한복판에서 옷을 벗고 휘청거리는 여성, 차 옆에서 대자로 뻗어 누워있는 남성 등 마약 투약으로 인해 몸을 가눌 수 없는 지경이 된 사람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올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만 적발된 마약 밀매량은 6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하고도 남는다. 그뿐 아니라 올해 마약사범으로 체포된 인원만 2만여 명이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 중 10대와 20대가 3분의 1을 차지한다. 이미 일상에 깊숙하게 자리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버렸지만 아직까지도 우린 마약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얼마 전 종영된 '힘센 여자 강남순'이나 '하이킥'은 물론이고, 영화 '독전2'까지 마약을 소재로 한 드라

마들이 OTT 시청 순위 1~2위를 다룰 정도로 상위권에 랭크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로 제작된 드라마 '하이쿠키'는 마약 거래와 소비가 이뤄지는 주 무대가 학교로 설정되어있다. 점점 거세지는 대학입시 경쟁 구도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잠도 줄여가면서 공부하는 학생들, '쉐프'로 불리는 마약 공급책이 성적에 혈안이 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쿠키에 마약을 섞어서 판매한다. 이 '마약 쿠키'를 먹으면 묘한 희열과 함께 고도의 집중력과 학습력을 얻게 된다. '마약 쿠키'를 파는 판매책도 역시 학생이다. 친구에게 마약을 팔아 생활비와 학원비를 번다. 이 드라마가 가진 섬뜩함은 배경이 학교라는 점을 넘어 학생들이 어른에 의해 마약에 노출된 게 아니라 학생 스스로가 마약을 파는 주체라는 점이다. 범죄 앞에 더 이상 어른과 아이의 경계가 무의미하다.

앞서 언급한 '하이쿠키'는 학교로 공간이 한정되어 있는 반면, '힘센 여자 강남순'은 남녀노소할 것 없이 모두가 쉽게 접할 수 있고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쇼핑물을 배경으로 한다. 쇼핑물 구매물건이 배달되면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마약이 퍼지고 있다는 설정이다. 마약을 일부러 퍼뜨리는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마약을 팔아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약에 길들여진 사람들에게 독점적으로 해독제를 팔아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기 위해서이다.

마약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괴로운 현실의 도피를 위해 시작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번 빠지면 헤어 나올 수 없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버린다. 더 이상 방치한다면 후하고 불면 날아가 버릴 회색가루, 침 한 번에 삼켜버릴 작은 알약 하나로 나의 현재와 미래를 소멸시키는 빅뱅을 일으킬 것이다.

chapter 3. 모든 병은 상실에서 온다

매년 공무원시험에서 떨어진 남자는 게임 속 판타지 세상에 갇혀버렸고, 보이스피싱으로 전 재산을 잃어버린 여자는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한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다 가진 여자는 모든 것을 다 벗어던지고 자유를 갈구하며, 어떤 이들은 너무 전력을 다해 살아내다 한순간 허물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마음이 아픈



안녕하세요!
'다시' 좋은 아침입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정신병동에도
☀ 아침이 와요

ONLY ON **NETFLIX** | 11월 3일 공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작은 병동은 병원에서 아침에 제일 먼저 해가 드는 곳이다. 따뜻하고 평온해 보이는 햇살 가득한 방.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최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의 이목을 끈 작품 '정신병동에도 아침은 와요'는 정신건강의학과로 발령을 받은 간호사 '다은'이 정신병동에서 만나는 마음이 시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휴먼 드라마다. 에피소드마다 어떻게 해서 이들이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리고 정신병동에 모이게 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처음엔 모든 불행의 시작은 가지고 싶었지만 가질 수 없는 것을 향한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여겼다. 하지만 회가 거듭될수록 더 견딜 수 없는 아픔은 상실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행복한 순간을 잃었거나 가장 소중한 무언가를 잃었거나 또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을 때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주변에서 다들 괜찮냐고 물어본다. 나 역시도 누군가에게 그런 질문을 별생각 없이 건넸던 적도 있고, 질문을 받았던 기억도 있다. 사실 괜찮지 않다. 그래서 괴로운 것이고, 아픈 것이다.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망각이라는 자기 보호본능에 의해 자연 치유되곤 한다. 하지만 때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럴 때는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고 실컷 울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환자 역시 저항력을 깨뜨리는 충격적인 사건에 노출되어 휘청이던 자신을 돌아보며 서럽게 운다. 그들이 울 때 나도 같이 목 놓아 함께 울었다. 우리 일상 속에서 막상 울고 싶어도 맘 놓고 울 데가 없다.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울어보겠는가! 드라마가 슬퍼서 울었다는 명분도 그럴싸하다. 쌓여있던 서러운 감정들을 눈물로 모두 흘려보냈을 때쯤 '희망'이라는 아주 낡은 단어 하나가 가슴 속을 채워나가는 걸 느꼈다.

결국 삶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 남들과 조금 다른 일상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따뜻하고 평온한 아침 햇살을 맞으며 시작하는 아침을 찾기 위한 희망으로 우리들은 살아간다. 아침은 반드시 온다. 희망이란 그런 것이다.

chapter 4. 비극 앞에 우린 여전히 남겨졌다

만약에 그랬다면 달라졌을까? 우린 어떤 실패와 상실을 겪었을 때 이런 생각을 종종 하곤 한다.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 우리 사회가 지닌 남북분단 문제가 역시 그러하다.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놓고 보면 남북분단이 가져온 뿌리 깊은 이념갈등, 지역감정 등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 하지만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독특한 상황 설정과 스토리 전개를 선보일 수 있어 꾸준히 인기작을 만들어내는 스테디셀러 소재이기도 하다. 예전엔 6.25 전쟁을 소재로 한 전쟁영화나 첩보영화를 통해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보여주며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최근 들어서는 콘텐츠를 소비하는 주체가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접근 방식이 많이 바뀌었고, 점점 진화하고 있다. 이제 비극을 강조하기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도 피어나는 휴머니즘에 더 집중하고 있는 듯하다.

특히 '사랑의 불시착'은 남북분단 현실을 로맨틱 코미디로 풀어낸 드라마로 국내에서만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사랑을 받았다. 어느 날 패러글라이딩을 하다가 돌풍에 휩쓸려 북한에 불시착한 재벌 상속녀와 그녀를 숨겨주다가 사랑에 빠지게 되는 북한 장교와의 로맨스가 펼쳐진다. 이 드라마의 성공요인은 결국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두 남녀의 로맨스를 애절함만이 아닌 주변인들과의 우정도 함께 판타지와 코미디로 잘 버무린 것도 한몫한 듯싶다.

3.8선을 경계로 나뉜 남과 북. 그 경계선을 이슬이슬하게 줄타기하는 듯한 불안한 현실. 우린 그 비극 앞에 여전히 남겨져 있고, 평화는 늘 위협받고 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영화나 드라마는 그 비극에 기대

어 연명하고 있지 않다. 그 경계선 너머에 어떤 삶이 희망을 잃어지고 살고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에 상상력이 더해져 가고 있다. 그 상상이 현실이 되는 것은 희망을 잃지 않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린 모두 경계에 서 있다. 우린 모두 남북으로 나뉜 경계선에 서 있으며, 희극과 비극의 경계선에 서 있는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에 있는 경계인이다. 시시때때로 일상의 평화를 깨뜨리는 'Chill Kill'의 등장에 위태로운 경계인이다. 그래도 여전히 비극 안에, 비정상적인 정신세계 안에, 불안한 현실 안에 바람이 분다. 경계 없이 자유로이 넘나드는 바람이 산다. 우리도 경계에 선 바람처럼 일상을 살자. 🐉

우리의 일상은 전쟁과 얼마나 가까울까?

이용석 |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우리는 보통 일상의 평화라고 하면 내면의 평화나 마음 돌봄, 내가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같은 것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차원의 평화는 무척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지옥이면, 세상이 아무리 꽃밭이어도 평화로울 수 없겠죠. 다만 우리가 일상의 평화에 대해 생각할 때 평화의 의미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이 지옥인데 내 마음만 꽃밭일 수는 없으니까요.

러시아의 포탄에 엄마를 잃은 아이의 사진, 이스라엘의 폭격에 학생들이 많이 죽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팔레스타인 학교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라도 슬픈 마음을 느끼겠죠. 그런데 이런 마음이 오래 가기는 힘듭니다. 우리는 어느새 전쟁 소식에 무뎌지고, 슬픔에 익숙해지고, 관심이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결국 세상이 지옥이어도 우리는 어느새 내 마음만이라도 꽃밭이기를 바라게 됩니다. 전쟁은 먼 곳에서 일어난 일이고, 내가 잊고 지낸다면 내 마음이라도 평화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이런 마음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무의식적인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보지 않고 외면할 순 있어도, 지옥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면 내 마음이 꽃밭일 수 있을까요? 세상이 전쟁이라는 지옥으로 가득할 때 지옥이 내 눈앞에서 펼쳐지지는 않더라도 지옥을 만드는 폭력이 바로 내 일상에서 싹트고 있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평화를 생각할 때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에서 평화를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먼 곳의 지옥이 우리의 일상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가 유럽과 미국의 영화제에서 상을 받고, BTS의 노래를 전 세계 사람들이 즐겨 듣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입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모든 것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드는 콘텐츠와 전자기기와 무기가 지구촌 어딘가에서 쓰이고 있겠죠. 멀리서 일어난 전쟁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연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 세계의 전쟁에 어떻게 연루되어 있을까요? 사실 연루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격렬하게 싸우는 양쪽을 중재하고, 평화협정을 이끌어가는 것도 전쟁에 깊숙하게 개입하는 행위니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 정부는 그런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정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로 최근 들어 한국은 평화의 전파자보다는 무기 공급자의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좀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라든지 “세계 4위 무기수출국” 같은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이야기하죠. 이런 말들이 마냥 빈말은 아닙니다. 한국 경제 상황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안 좋다고 하고, 무역 수지 적자 규모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무기 산업을 활황입니다.

무기 산업의 전성시대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전쟁이 있어서 무기 회사가 돈을 버는 것인지, 무기 회사가 무기를 만들고 돈을 버니 전쟁이 일어나는지 구분하기 어려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작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쟁이 일어났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데다가,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공격과 인질납치에 대해 이스라엘이 확실이나 다를 바 없는 보복공격을 퍼부으면서 또 하나의 전쟁이 추가되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무기 사용이 늘어나고,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각국이 군사비 지출을 늘리니 무기 산업이 호황일 수밖에요. 2022년 전 세계는 약 2,980조 원을 군사비로 지출했습니다. 1초마다 56억 원을 군사비로 쓴 셈입니다. 이는 2021년도에 비해 3.7%나 증가한 것입니다. 국가 예산에서 3.7% 증가는 어머어마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한 국가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니까요.

이처럼 크게 늘어난 군사비는 무기 산업으로 흘러듭니다. 이런 기대 심리를 반영하듯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군수산업체인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언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전과 대비해서 록히드마틴의 주가는 21.1%, 레이시언의 주가는 13.7%가 상승했습니다.(2022년 4월 14일 기준) 한국 무기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군수산업체인 한화, KAI, LIG넥스원, 현대로템 모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매출이 10~20% 정도 늘었고, 영업이익이 40~140% 늘었습니다. 한국의 록히드마틴을 꿈꾼다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2023년 4월 5일 기준)

2020년 30억 달러에 그쳤던 한국의 무기 수출은 2021년 72억 달러로 수직상승 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2022년에는 173억 달러로 아예 하늘을 뚫어버릴 거 같은 상승률을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만을 예로 들었는데요, 한국산 무기가 전 세계의 여러 전쟁과 분쟁에서 맹활약(?)한 사례는 훨씬 많습니

무기박람회 아덱스 저항행동(2021년)





예멘 지역에서 발견된 한화 세열수류탄(출처 @YemeniObserv)

다. 대표적으로 한화가 생산한 세열 수류탄과 다연장로켓 천무는 예멘 내전에서 쓰이고 있고, 바라쿠다 장갑차와 레드백 전차는 인도네시아에 수출되어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민을 탄압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기업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창원은 방산특례시를 천명하며 방위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가 바뀌어 가고, 창원국가산단의 설비나 장비가 노후화되어 새로운 산업 동력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전쟁 산업을 새로운 동력으로 삼은 것입니다.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전쟁 무기 박람회인 서울 아텍스가 2023년 10월 성남의 서울공항에서 열렸는데요, 이 행사에는 록히드마틴, 레이시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같은 무기를 만드는 군수산업체들뿐만 아니라 경남교육청도 홍보 부스를 열어 참여를 했습니다. 경남 지역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 연계를 강화하고 직업교육혁신지구(항공분야)를 소개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의 취업은 무척 중요하고, 지역의 일자리도 매우 중요한 사회문제입니다.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사회 전체가 책임감을 갖고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쟁 무기를 만들고 파는 일만이 최선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전쟁은 우리의 일상에서 시작되어 우크라이나로, 팔레스타인으로, 예멘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살고 있지만, 실은 전투 현장에서만 멀리 떨어져 있을 뿐 우리의 일상과 매우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란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이미 전쟁에 깊이 연루되어 있고, 전쟁으로 이익을 보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전쟁의 책임이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결심하는 정치인이나 전장에서 사람들을 죽이는 군인 혹은 전쟁 무기를 만들고 판매하는 것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전쟁 산업)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독재자라고 해도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키고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히틀러도 처칠도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국민들의 동의를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혐오했던 히틀러가 기업의 법인세를 인상해서 노동자들에게 어필하고, 보수당의 정치인인 처칠이 노동자들에게 복지를 약속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유명한 영국의 복지제도가 탄생했죠. 다시 말하면 국민들이 전쟁을 동의하거나, 지지하거나, 하다못해 모른 척 외면했기 때문에 전쟁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이죠. 전쟁에는 분명 보통 사람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책임이 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권한과 힘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힘과 권한으로 전쟁을 멈출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우리의 일상에서 전쟁이 시작된다는 말은 우리의 일상을 바꾸면 전쟁을

멈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반대하고 전쟁에 동참하거나 전쟁으로 돈을 벌기를 거부한다면 전쟁은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물론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창원의 군수 산업체들이 문을 닫는다면 그곳에서 일하는 수만 명의 노동자들과 가족들, 그리고 지역의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질 테니까요. 그렇다고 언제까지 전쟁 산업에 우리의 생계를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전쟁 산업은 전쟁이 일어나야지만 유지되고 성장합니다. 평화가 찾아



국방과학연구소가 전제 개발하고 LIG 넥스원이 생산한 대전차유도미사일 현공이 예멘의 후티 반군공격에 사용되었다. (출처@SAUD_POWER)
올해 초 200여 명의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한 아프린주 공습에 사용된 한국산 전차탄 (출처 Haber Kritik/동영상)

오면 전쟁산업은 쇠퇴합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서로 자신의 핵단추가 더 크다고 다투고 남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던 2017년 록히드마틴이 역대급 매출을 기록했다가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도보다리 회담을 하는 날 록히드마틴의 주가가 폭락한 일은 전쟁과 전쟁산업의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전쟁산업에 의지할수록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기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돈벌이가 되니까요. 더 많은 무기가 팔릴수록 더 많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분쟁 가능성이 높아질 때 가장 불안한 지역 중 하나가 바로 중국과 대만, 북한과 남한이 군사적으로 긴장관계에 놓여 있는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입니다. 결국 전쟁무기산업은 우리 미래의 평화를 해치는 대가로 돈을 버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의 노동과 밥벌이에서,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촉진해야하는 절박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수십 년 후, 또는 언젠가 올 미래의 연구자에게

신현아 | 동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1. 87년의 신혼부부와 중공업 가족

1986년 어느 날, 부산여상을 졸업하고 기업은행 초량지점에서 일하고 있던 26살의 박송희는 백 번째 선을 보러 가고 있었다. 이번에도 같지 않은 남자가 앉아 있거든 언제나처럼 자리를 박차고 나올 마음이었다. 카페에는 순박하게 생긴 총각이 덜덜 떨며 앉아 있었다. 그 총각은 경남공고와 경남공전을 나와 군대를 제대하고 대우조선에 말단 사무직으로 막 입사한지라 여성과 이렇게 마주 앉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았다. 그래서 어찌나 덜덜 떨었는지 스푼으로 설탕을 떠서 커피로 옮길 때마다 설탕이 테이블 위로 떨어져 하얀 길이 생겼다. 그렇게 박송희는 신창익을 만나 얼마 후 결혼하여 거제에서 신혼을 시작하게 되었고, 87년 10월에는 첫 아이를 낳게 되었다.

다시 말해 87년 10월 거제에서 첫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그들의 신혼 생활이 87년 노동자 대투쟁의 가운데 있었다는 의미이다. 당시 거제 대우 옥포조선소는 “거제에서 구로까지 옥쇄 깨고 외쳤던”(<총파업가>) 노동자 대투쟁의 와중에 있었다. 신창익은 당시에 대해 “집에 마누라가 만삭인데 월급을 못가져갈까 봐 죽는 줄 알았다.”고 기억했다. 그렇게 태어나게 된 아이는 노동자 대투쟁은 들어보지 못했지만, 유치원 때부터 ‘콜리앗 크레인’ ‘대우조선’ ‘선행도장부’ 같은 낱말을 알았다.

그렇게 대우사원아파트에 살면서 대우초등학교에 다녔고, 우리 아파트뿐만 아니라 일대의 60개 동에 사는 아저씨들도 전부 대우조선에 다녔다. 매일 아빠같이 생긴 사람들 수 만 명이 똑같은 회색 회사복에 남색 점퍼를 입고 우르르 출근해서 우르르 퇴근하였고, 아이들은 한 번 쯤 다른 아저씨에게 “아빠!” 하고 불러서 머쓱한 경험이 있었다. 하지만 TV 속에서는 언제나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잔뜩 출근하는 모습만이 나왔다. 도대체 저 동네는 조선소도 없으면서 무슨 일을 하길래 회색 회사복이 아니라 양복을 입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대학에 가고 나서는 남자아이들은 방학 때 거제로 내려와 조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는 중고등학교 시절 엄청난 골칫덩어리였던 남자아이들이 회색 회사복을 입고 조선소에 출근하는 사진을 SNS에 올렸다. 그리고 또 몇 년 후에는 그 동창들이 가정을 꾸려 단란한 사진을 올리는 것을 보았다.

2. 전국 팔도 자료 찾기

나는 이런 이야기를 연구로 다루고 싶었다. 대공장을 중심으로 재편된 지역에서의 삶이 무엇인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같은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고 다시 같은 회사에 자식들이 취업하게 되는 구조가 무엇인지 연구하고 싶었다. 도대체 이런 이야기는 무엇으로 어떻게 다뤄야 ‘연

구가 될 수 있을까? 처음에는 조선소 도시를 배경으로 쓴 김숨 작가의 소설 『철』을 분석하여 논문을 썼다. 하지만 그 외에는 몇 편의 '노동소설'만이 '조선소'를 다루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소설'이 아니라 조선소 도시의 사람들이 직접 말하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했다. '그래! 바로 거제 대우조선의 노동조합의 노보를 구해서 볼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떠올랐고 바로 실행에 옮겼다.

(따르르릉)

“예. 대우조선 노동조합 사무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우조선 노동조합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싶은 동아대학교의 신현아라고 하는데요, 혹시 87년부터 나온 노보를 볼 수 있을까요?”

“예……? 누구시라고요……?”

뜨악함이 느껴지는 침묵이 얼마간 지나고, '네가 누군줄 알고 다짜고짜 보 여달라고 하느냐'라는 의미의 답을 보다 정중한 말로 들을 수 있었다. 제대로 자료 찾기를 해본 적이 없었으니 대학 도서관에 요청하듯 노동조합에 문의를 한 것이었다. 심기일전하여 예전 진보신당 지인들 등등을 거쳐 다시 문의한 결과 “옛날에 어느 대학에서 책을 낸다고 해서 다 봤는데 어디로 갔나 모르겠다.”라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포기하려던 찰나, 누군가가 자료는 그렇게 전화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알려주었다. 그렇게 박사과정을 수료하고도 한참 후에 처음으로 '자료'를 찾는 법을 알아가게 되었다.

은 동네방네를 뒤져서 알아낸 바, 대우조선 노동조합의 노보는 '사흔의 구슬'처럼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었다. 성공회대 노동사 연구소에서 발간한 『한국 노동사 자료 총서』에 일부 영인되었고, 원본은 성공회대 민주 자료관, 노동자 역사 한내, 울산 노동 역사관에 흩어져 있었다. 즉 서울, 고양, 울산에 마구



1986년 신창익 박승희 결혼식

흩어져있었다는 뜻이다. 그마저도 온라인 아카이브에는 자료가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이 실제로 열람을 문의했을 때는 없거나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일단 자료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열람하러 가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터졌다. 나는 여기저기 비둘기를 날려 보내 읍소하며 방문이 불가한 상황이니 스캔이나 복사된 문서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지 타전하고 있었다.

3. 파랑새는 집 마당에, 중요한 자료는 가까운 자료실에

자료가 과연 자료실 안에 있을지 없을지, 있다 해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찾으러 갈 수도 없이 막막하게 기다리던 상황 중에 민주공원에 다른 일로 회의 차 방문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나의 근황을 듣던 민

주공원의 연구원 선생님이 갑자기 “저희 자료실에도 대우조선 관련 자료가 좀 있습니다만...”이라고 말을 꺼냈다. 물론 이미 나는 온라인상으로 민주공원 아카이브를 찾아보았지만, 검색되어 나오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온라인에 아카이브되지 않은 것뿐, 자료실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얼마 후, 연구원 선생님이 만든 대우조선 노조 관련 사료 목록을 받고, 나는 바로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써야한다는 것을 보자마자 알 수 있었다.

민주공원 자료실에는 대우조선 노동조합의 노보 외에도 격렬했던 87~88년 당시의 유인물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거기에는 노보에는 드러나지 않는 노동자와 지역 선주민 간의 갈등, 그리고 지역 선주민들의 목소리가 남겨져 있었다. 노동조합의 노보나 회사의 사보처럼 정기적으로 발간된 잡지는 어떻게든 남아 있었지만, 조상 대대로 살던 지역이 ‘대공장’을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된 후 ‘고향에 사는 실향민’이 되어버린 지역의 선주민들의 이야기는 어디서도 찾기 어려운 자료였다. 고향에 살지만 더 이상 자신들이 알던 고향도 아니며, 그 곳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도 없게 된 채로 남겨진 사람들은 ‘장승포시 원주민 일동’의 이름으로 1989년 5월에 유인물을 발간하여 “우리도 전에는 이곳의 주인아



대우국민학교 2학년 난반 95년 3월

1986년 대우조선 신창익 · 대우조선 노동자들
1995년 대우초등학교 신현아

라고 생각했으나, 이제는 당신들의 눈치만 보는 신세 망친 사람들"이라고 하며, "대우조선 작업복이라도 한 번 입는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당신네 회사의 청소나 도맡아 하는 당신들의 종놈"이라고 절규하였다. 그리고 노동조합에서는 「거제지역 주민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유인물을 몇 차례나 만들어 자신들은 지역의 침탈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갈 동반자임을 강조하고 있었다. 그리고 장승포시의 한 「반상회보」에는 지역주민들이 노동자가 아닌 자본과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변하는 관공서의 입장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국가와 자본이 지역의 용도를 변경함에 따라 지역으로 이주하여 새로운 '주인'이 될 '노동자'들과 이전까지 지역의 주인이던 '선주민'들의 입장이 격렬하게 나뉘며 '지역'에서 밀려나고 '용도폐기'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선명하게 드러나는 장면들이 유인물 위로 펼쳐졌던 것이다.

이전까지 나는 지역의 역사는 당연히 '대공장'이 들어선 것을 원년으로 삼는 '산업도시'의 역사로 등치시켜왔다. 그러나 이 유인물들은 지역의 역사가 훨씬 이전부터 이어져 왔으며, 그 과정에서 지역은 끊임없이 국가와 자본에 의해 용도가 바뀌고 주민들은 뿌리가 뽑히거나 이식되어 왔다는 것을 강변하고 있었다. 그 결과 지역과 노동과 가족이 중첩되는 구조를 87년을 기점으로 분석하려던 나의 계획은 방향을 바꾸어 '지역'이 역사적 흐름 속에서 어떻게 서사화되었는지 분석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1988년, 눈만 뜨면 새로운 유인물들이 흠뻑려져서 누구도 그것이 귀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 당시에도 누군가는 그 종이를 밟고 지나치지 않고 한 장 두 장 모았을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는 고작 어느 지역 촌동네의 반상회보라고 생각했을 종이마저도 언젠가 반드시 쓰이리라 믿고, 차곡차곡 번호를 매겨 정리하고, 잃어버리지 않고 보관하고, 자료실이 옮겨지면 옮겨다 다시 보관하면서 수십 년 동안 지켜왔던 사람들의 손길이 있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자료들을 꼭 만나고 싶어 하던 미래의 누군가와 결국 만나 비로소 새로운 의미를 발현하게 되는 것이다. 하여 현재의 우리들도 비록 지금은 의미가 적어 보인다 해도 언젠가 찾아와서 그 의미를 찾아낼 미래의 누군가를 위해, 하나씩 벽돌을 쌓아 올린다. 🧱



1992년 대우조선 신항익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민주공원 23년 사업평가 및 24년 계획수립 워크숍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와 수탁·부설기관 임직원은 12월 8일(금)과 9일(토) 양일간 통영으로 <23년 사업평가 및 24년 계획수립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2023년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전체 기조였던 “시민이 일구는 민주주의, 시민과 함께 하는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를 바탕으로 각 단위별 성과와 보완 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신임 민주공원 10기 관장인 이동일 현 사무처장이 내년도 활동 기조와 계획을 발표하고 모둠별로 각 계획을 검토, 더욱 깊이 토론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창립 35주년, 민주공원 개관 25주년이 되는 2024년

도에도 시민과 함께 하는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일꾼들이 되겠습니다.

부산중구청, 민주공원, 부산어린이어깨동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12월 11일(월) 부산 중구청과 민주공원, 사단법인 부산어린이어깨동무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부산 중구청은 2021년 부산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하여 2022년 12월 민주시민교육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교육부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5개 분야 2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민주공원은 올 한 해 민주시민교육 골목탐험 대장 양성과정 12회차, 부산 중구 골목 탐험을 20회 진행하였습니다.



2023 민주부산의 날



2023년 12월 7일(목) 오후 7시부터 수영 화목뷔페에서 부산지역 민주원로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모두 모여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 결의를 나누는 <민주부산의 날>을 열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금 수여도 있었습니다. 김기환(부산 공공성연대 추천), 김이진(부산민중연대 추천), 박준휘(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 부산본부 추천), 전우원(부산여성단체연합 추천), 주서진(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추천) 등 다섯 명의 어린이,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각 연대 단체의 대표가 '단결로승리'에 맞춰 오행시 결의를 외치고 다

함께 2024년도에서 하나가 되어 민주부산의 봄을 이루고자 마음을 모았습니다.

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 창립총회 개최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설기관인 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이 독립을 위한 첫발을 뒀습니다. 사단법인으로의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11월 24일(금) 저녁 7시 노티스 카페에서 <사단법인 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나락한알은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와 회계 및 구체적 분리 과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분리가 완성되면 MOU를 체결하여, 이전의 연대를 새롭게 공고히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나락한알이 지역민주시민교육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올 활동과 비전을 점검하는 내부 포럼을 진행하려 합니다. 많은 응원과 격려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민주공원 부속건물 공사 진행

민주공원 부속건물 공사는 가을쯤 부속건물 공사는 흙파기 등 토공사를 마무리하고 11월부터 지하 1층 골조 공사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지상 1층까지 골조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부속건물은 민주화운동 사료를 보관하는 기록관으로, 지하 2층 지상 3층 전체면적 2,191㎡ 규모로 지어집니다. 내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 편의를 위한 민주공원 곳곳 새 단장

민주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민주공원 곳곳을 수리하고 새로 단장했습니다. 일주도로에 있는 가로등마다 번호 표찰을 달아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방통행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을 따라 번호를 붙여 출입, 주차 등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주항쟁기념관 극장도 새단장했습니다. 중극장에는 극장 감독들이 사용하는 조정 부스를 1층에 설치하여 무대에 보다 가까워졌습니다. 소극장 중문도 보강하여 소음을 차단하고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안전하고 이용이 편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새 단장한 민주공원 홈페이지

민주공원 온라인 홈페이지도 새 단장했습니다. 홈페이지의 보안을 강화하고 다양한 소식을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새 민주공원 홈페이지에서는 민주공원 곳곳의 모습을 VR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민주공원 부속건물 부지도 VR 지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관 신청은 물론 체험 프로그램 신청, 전시, 공연 등 행사 예매, 회원 프로그램 신청도 민주공원 홈페이지에서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에 힘쓰기 위해 대관 신청 등을 할 때는 민주공원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해야 하니 번거롭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새 단장한 민주공원 홈페이지를 둘러보세요!




 사단법인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문의 www.ohminju.or.kr | ☎ 051) 790-7477

**민주시민의
특별한 기부**



당신이 민주주의입니다.
현재와 미래로 나아가는 우리의 길에 함께 걸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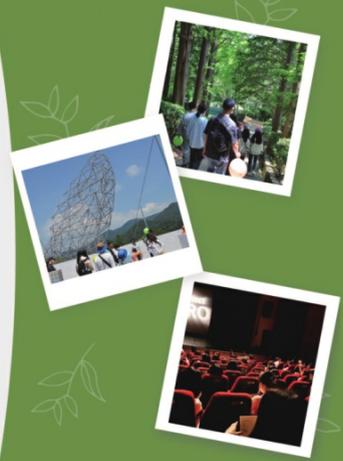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 후원해주신 기부금은 민주화운동을 기념·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기념사업, 민주시민교육, 대중문화예술, 기획전시, 체험활동사업에 쓰입니다. 후원회원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무료 또는 할인된 금액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후원회원 가입은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홈페이지(www.ohminju.or.kr) 또는 민주공원 홈페이지(www.demopark.or.kr)에서 하실 수 있으며 QR코드를 스캔하시어 간편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회원사업 담당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 전화 : 051-790-7473
- ◆ 이메일 : dohee@demopark.or.kr



<특별한 기부, 특별한 혜택>

 가정용 반려화분 세트 택배 발송	 행사, 교육활동 우선알림과 혜택	 회원 간 교류활동 (역사기행, 체험프로그램 등)
 소식지 무료 발송 (연 4회)	 공연, 전시 관람 특별 할인 혜택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



2023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한 해 동안 후원해주신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회원님의 따뜻한 마음이 연말정산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드립니다.

1. 나의 정보 확인

회원님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야만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후원회원' → 나의 후원이야기 → 회원정보(로그인) → 기부금영수증 확인



< 홈페이지 바로가기

위의 경로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거나, QR코드를 인식해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있는지 확인해주세요.

2. 기부금 영수증 조회 및 출력 방법(2024년 1월 중순 이후 가능)

1

국세청(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그인 필요)에서 기부금 영수증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2

홈페이지

나의 후원이야기(로그인 필요) → 기부금 영수증 탭을 통해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3

후원상담 및 방문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하단의 문의 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 문의

- 전화 : 051-790-7473
- 이메일 : dohee@demopark.or.kr



『성찰과 전망』 38호를 발간

민주주의사회연구소에서 성찰과 전망 38호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호 기획논문은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 교수의 「민주공화국이란 무엇인가? 입헌적 민주복지국가의 전망」으로, 2023년 한국사회의 법과 공정성에 대해 묻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김지운 감독이 「조선학교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통해 차별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민족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재일동포들의 상황을 소개합니다. 연재로는 김종기 관장이 「21세기의 사상가 자크 데리다」를, 김준태 교수가 「사마천의 사기-치욕을 딛고 써 내려간 불후의 명저」를 소개합니다. 이 외 「세계를 누비는 부산 밴드, '세이수미'를 만나다」, 「박재혁 의사의 흔적을 찾아서」 등 흥미로운 글들이 많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 부산민주공원 공연장 · 전시실 정기대관 분기별 변경 안내

부산민주공원 공연장 · 전시실 정기대관 절차를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공연장과 전시실을 사용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대관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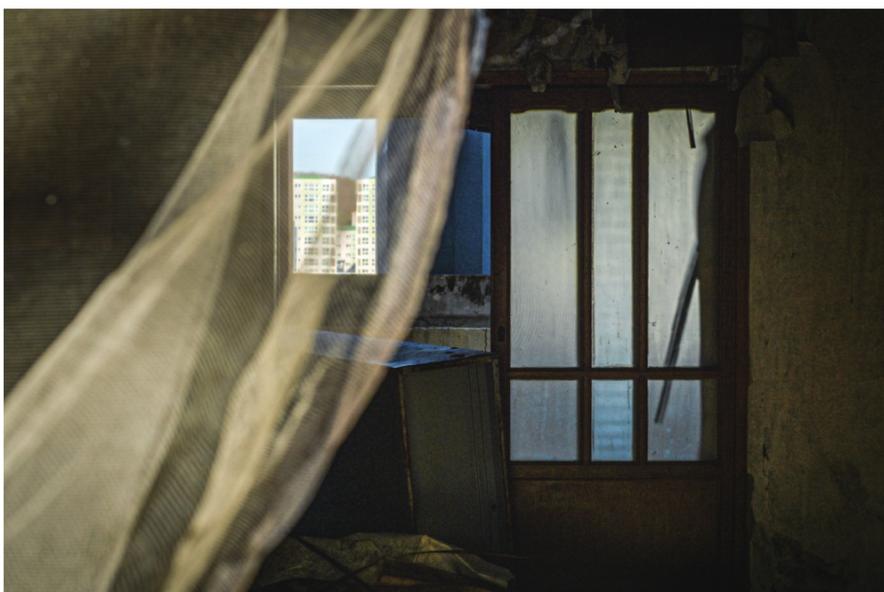
변경 정기대관 시기

구 분	1분기 (1~3월)	2분기 (4~6월)	3분기 (7~9월)	4분기 (10~12월)
	2024년 1~3월	2024년 4~6월	2024년 7~9월	2024년 10~12월
대관 접수 기간 분기 2개월 전 달(月) 1~10일	2023년 11월 1~10일	2024년 2월 1~10일	2024년 5월 1~10일	2024년 8월 1~10일
정기대관 공지 분기 3개월 전 달(月) 말일	2023년 10월 말	2024년 1월 말	2024년 4월 말	2024년 7월 말
대관 심사일 분기 2개월 전 달(月) 20일	2023년 11월 20일	2024년 2월 20일	2024년 5월 20일	2024년 8월 20일
승인여부 통보	대관 심사 7일 후			

겨울...

“엘리트들이 늘 문제야. 우리나라는 엘리트들이 다 말아먹어.” 버스 뒷자리에서 갑자기 닥쳐 오는 말이 목덜미를 타고 들려온다. “뭐 그 놈만 사기쳐 먹었나, 정치하는 놈들은 더하지.” 반찬가게를 돌아서는데 시장 귀퉁이 아주머니들의 낮은 수근거림이 들린다. “○○은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입조심해야겠네.” 사업하는 선배는 통화하다가 발등에 툭 한숨을 떨어뜨린다. “자칫하면 프로그램이 없어질지도 몰라. 예산이 많이 깎였거든.” NGO 활동하는 가까운 지인은 오랜만에 마주 커피를 마시며 지친 듯한 어깨를 내린다. “나랏돈 들고 뻘질나게 외국 다니면 뭐하노? 외신에 저런 뉴스만 나오는데... 나라 꼴 좋다.” 어딜 가나 듣는 말이 새삼스럽지 않다. 세상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뻘뻘하기 짝이 없어진다. 빛은 삶이 떠난 빈 공간에 비집고 들어와 포아리를 튄다. 찢어지고 불안하고 흔들리는 시간 속 비둘기는 하늘에서 귀가를 서두른다. 보호받지 못하는 삶, 안전장치는 없다. 모기장 넘어 난 각각의 창으로 저마다 다른 빛이 들어온다. 세상 모순을 감추려 천장은 무너지고 벽은 뜯겨진다. 보장 없는 삶 속에 내일은 또 온다. 비루한 삶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뻘뻘한 인간들 사이에서 갈 길을 잃는다. 겨울은 없는 살림을 찾아 기필코 다가온다.

글 · 사진 _ 뿌리아김



“

이제는 안다. 더더보이지만,
우리의 내일은 서로를 부족하며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